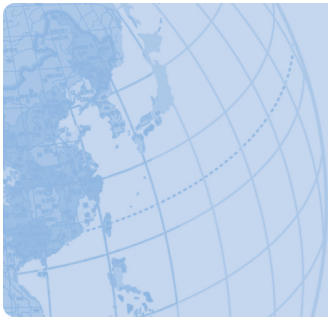


중국 제분산업 현황 및 과제



중국 제분산업 현황 및 과제*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1. 중국 제분산업 현황

최근 몇 년간 국내외 자본이 중국 제분산업에 진출하면서, 중국 제분업체의 가공처리능력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중국 전역 통계 범위 내 포함된 기업의 가공처리능력은 1억 200만 톤, 2011년에는 1억 7,800만 톤으로 74.5%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공처리능력의 심각한 과잉 현상으로 기업 실질 가동률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전국 통계범위 내 포함된 기업의 가동률은 67.1%에 그쳐 2007년에 비해 0.6%p 감소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의 가동률은 9%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분산업의 과다 경쟁으로 기업의 이윤도 하락하였다. 특히 밀가루 가격 경쟁이 과열되면서 기업의 이윤은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제분산업 전체의 수익성도 악화되었다. 2008년~2011년까지 제분산업 전체 이윤총액이 각각 23억 6,000만 위안, 26억 3,000만 위안, 41억 4,000만 위안, 55억 4,000만 위안을 기록한 반면, 판매수입 이윤율은 각각 1.8%, 1.7%, 1.9%, 2.1%에 그쳐 전체 식량식품산업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1.1. 소맥가공기업의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중국 식량가공산업의 개혁과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분산업 업체수가 해마다 증가하였고, 기업의 생산능력도 빠르게 확대되었다. 또한 기업 규모도 점차 확

* 본고는 韓一俊(2012)의 “中國小麥產業 發展與政策選擇” 연구보고서를 요약발췌한 것임.

대되어, 소규모 기업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었다. 2011년 기준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을 포함하여 중국 전역 제분 기업은 8천여 개로 집계되었고, 그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3,233개로, 2007년보다 49개가 늘어났다. 2011년 중국 제분 기업의 가공처리능력은 1억 7,800만 톤으로, 2007년에 비해 7,600만 톤이 늘어나 74.5%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중국 밀가루 산업의 생산능력 확대는 주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집중되었다. 2011년 대기업과 중소기업(200 톤/일 미만) 생산능력은 1억 4,000만 톤으로 전체 78.6%를 차지한 반면, 소기업의 경우 3,821만 톤으로 21.4%에 그쳤다.

제분업체의 생산능력은 확대되었지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가동률은 현저히 감소했으며 이는 중소기업에서 더 뚜렷이 나타났다. 2011년 제분 기업의 생산량은 8,519만 톤으로 2007년에 비해 95.2% 증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가동률은 67.1%에 그쳐 2007년에 비해 0.6%p 감소하였다. 그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밀가루 생산량은 7,520만 톤으로 전체 88.3% 차지한 반면, 소기업은 999만 톤으로 11.7%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표 1. 중국 밀가루 가공기업의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현황(2007~2011년)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생산능력	억t 소맥/년	1.02	1.16	1.22	1.60	1.78
밀가루 총생산량	만t 밀가루/년	4365	5501	5533	7529	8519
가동률	%	67.7	67.7	67.1	67.2	67.1
일정규모 이상 기업수	개	3184	2819	2787	3027	3233

주: 연구조사와 통계국의 월별, 연도별 데이터 합계
 자료: 韓一俊(2012)

1.2. 제분기업 규모 분포

시장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들어 중국 제분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 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1년 중국 일정 규모 이상의 제분 산업 업체수는 총 3,233곳으로, 그 중 소맥 일일 처리량 200만 톤 이하 기업은 1,932개로 59.8%를 차지하였다. 200~400 톤 기업은 790곳으로 24.4%를 차지하였으며, 400 톤 이상의 경우 511곳으로 15.8%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제분산업의 양적 증가, 규모 확대는 물론, 가공능력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표 2. 2011년 제분기업의 규모별 분포

	합계	대기업 (>400t/일)			중소기업 (200~400t/일)			소기업 (<200t/일)		
		수량	비중	증가폭	수량	비중	증가폭	수량	비중	증가폭
기업(개)	3,233	511	15.8	19.7	790	24.4	11.1	1,932	59.8	2.4
생산능력 (만t)	17,822	8,844	49.6	17.5	5,156	28.9	13.1	3,821	21.4	-1.1
생산능력 (만t)	8,519	5,208	61.1	22.7	2,312	27.1	8.4	999	11.7	-13.2

주: 연구조사와 통계국의 월별, 연도별 데이터 합계
자료: 韓一俊(2012)

1.3. 제분산업의 시장집중도

중국 제분기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최근 제분기업 규모 집중도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1년 대기업과 중소기업(200만 톤/일 미만)의 생산능력은 1억 4,000만 톤으로 전체 78.6%를 차지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밀가루 생산량은 7,520만 톤으로 전체의 88.3%를 차지하였다. 2011년 중국 밀가루 가공기업 중 상위 5대 기업의 생산능력은 800만 톤으로 전체 생산능력의 4.5%를 차지하였는데, 기업별로 살펴보면 우더리(五得利) 생산능력이 1위로 390만 톤, 중량(中糧)그룹은 133만 톤, 이하이자리(益海嘉里) 129만 톤, 진마이랑(金麦朗) 85만 톤, 장쑤장난(江苏江南) 63만 톤으로 조사됐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제분기업의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밀가루 과잉 생산이 기업 규모의 집중도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가공 구조에서 다원화가 틀을 갖추면서 다양한 기업체제에서 선두기업들이 나

타났다. 2011년 국영 지주회사 형식의 일정 규모 이상의 제분 기업 수는 전체 9.2%인 299개이며, 이들 기업의 생산 능력은 1,633만 톤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은 전체의 7.8%인 662만 톤이다. 2011년 기준 민영 제분기업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전체의 89.3%인 2,888개이며, 생산능력은 전체의 86.5%인 1억 5,415만 톤, 생산량은 7,434만 톤으로 전체의 87.2%를 차지하였다. 2011년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 제분 기업수는 46개로 전체의 1.4%를 차지하였다. 이들 생산능력은 전체의 4.3%인 775만 톤이며, 생산량은 423만 톤으로 전체의 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역 주요 밀 생산지역마다 대표적인 가공 기업들이 생겼으며, 이들 기업의 가공능력 또한 향상되고 있다. 국유기업인 중량그룹의 현재 일일 가공능력은 6,750톤으로, 8,100톤 규모의 생산라인을 추가로 건설 중에 있다. 민영기업인 우더리는 일일 가공능력 1만 8,000만 톤에, 6,000만 톤 규모의 추가 생산라인을 건설 중에 있다. 완공되면 연 가공능력은 780만 톤으로 증가해 국내 총 밀가루 생산량의 6%를 차지하고, 일일 밀가루 생산량은 1만 6,500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 기업인 이하이 그룹은 현재 6,000톤 생산 규모를 갖추었으며, 4,800톤 규모 생산 라인을 추가 건설 중에 있으며, 홍콩기업인 난순(南順)도 현재 2,600톤에서 1,800톤 생산규모를 추가 건설 중에 있다.

표 3. 제분기업의 소유형태별 현황

기업형식	연도	기업수	비중(%)	생산능력 (만t)	비중(%)	생산량 (만t)	비중
국영 및 지주회사	2008	328	11.6	1424.9	12.2	611.6	7.8
	2009	259	9.3	1131.9	9.3	416.4	7.5
	2010	279	8.7	1439	9.0	564.8	7.5
	2011	299	9.2	1633	9.2	662	7.8
민영	2008	2454	87.0	9692.9	83.5	4578	83.3
	2009	2491	89.4	10478.3	86.1	4760.5	86.0
	2010	2704	89.3	13815.5	86.6	6585.7	86.6
	2011	2888	89.3	15415	86.5	7434	87.2
마카오, 홍콩을 포함한 외자	2008	37	1.3	482.5	4.1	315.8	5.7
	2009	37	1.3	502.3	4.1	327.7	5.9
	2010	44	1.5	699.2	4.4	378.1	5.0
	2011	46	1.4	775	4.3	423	5.0

주: 연구조사와 통계국의 월별, 연도별 데이터 합계
자료: 韓一俊(2012)

1.4. 제분 기술 현황

시장에서의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밀가루 생산의 고급화, 에너지 효율 강화, 생산원가 절감이 제분 기업의 생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중국 제분산업의 제분기술은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특히 식품산업의 고속 성장은 제분 기업들의 가공 기술과 장비 선진화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 시설 및 장비

1980년대 들어 중국은 새로운 밀가루 생산라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제분 공법이 개선되었고, 식량산업장비 제조 수준이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중국내 곡물 설비 제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중국의 제분설비의 제조고업비과 가공정밀도를 혁신하는데 기여했다. 선진적인 수치제어기계가 제분기업에 보급되면서 국내 제분산업의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현재 운송, 창고, 정리,

가공제조 등 전처리 설비는 물론, 제분 생산현장의 메인 및 서브 설비, 기체수송, 통풍 제진, 출하, 계량, 배합, 포장, 적재, 하역 등 설비 모두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생산설비에 대한 제분산업의 니즈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다.

최근 중국내 제분기업이 빠른 성장을 이루면서 해외 선진 제분 설비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설비수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불러그룹(Buhler)은 1984년 중국에 베이징 사무소를 설립하고, 생산라인을 본격적으로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어 1993년 선전에 계량, 포장 분야를 타깃으로 한 공장을 합자 설립하였다. 1994년에는 우시 현지 곡물회사와 합자하여 우시 불러 기계 설비 제조기업을 설립하고 제분기계, 사료기계를 생산하면서, 글로벌 3대 생산기지로서 합자기업의 영향력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2002년 불러차이나를 설립하여, 제품 판매, 서비스, 플랜트설비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까지 불러는 중국에서만 독자, 합자의 형식으로 5개 생산기지를 보유하면서, 제분, 정리, 혼합, 수송 계량, 포장 등 곡물가공 설비는 물론, 창고, 물류 설비까지 다양한 상품을 주력제품으로 하고 있다. 그중 제분 설비는 중국 350톤급 이상 생산라인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입지를 갖고 있다.

나. 제분공법

중국은 1980년대 들어 제분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으로부터 300여개의 제분 생산라인을 도입한 후, 산업 전문가와 과학기술기관의 협력을 거쳐 국내 시장 실정에 맞는 생산공법을 개발하고 현지화에 성공하였다. 피곡처리공법에 있어 정맥(clean wheat)이 분쇄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맥 불순물 제거 및 정제 공법과 피곡 혼합이 특히 중요한데, 이를 통해 제분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공법설계는 모맥(毛麥)창고, 정맥창고, 분쇄기 전처리 창고를 포함한다. 2차 착수공법, 분쇄 전 분무착수공법을 사용하여 제분 식품 안전과 안정적인 제분공법을 보장한다. 현재, 국내 대기업은 4~5번 껍질 연마, 7~10번 알갱이 연마, 2~3번 돌멩이 연마, 2~3번 후미 연마, 2~4번 정맥 제분 공법을 거친다. 분리하고 걸러내는 과정을 통해 순도 높은 추출이 가능하며, 청분(淸粉)기술을 이용해 전로(前路) 과정에서 발생한 맥심, 찌꺼기를 제거한다. 다시 알갱이 연마, 찌꺼기 연마 시스템에 보내어 연마하고 이를 통해, 회분이 적고, 가공 정밀도가 높은 제분율을 높인다. 전로 과정 중 미세한 입자는 1차적으로 걸러 분류하여 다시 정분시스템에 넣는다. 알갱이 연

마 시스템, 불순물 연마시스템, 재분류 대상물질을 체에 거르기 전에 충돌 과정을 거치게 하여, 연마와 선별 효율을 높인다. 후로(後路) 껍질 연마 시스템은 맥부(麥麩)를 다지고 선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 배유 부분이 쉽게 탈락되어 분리될 수 있도록 한다.

다. 품질관리

피곡 품질 관리와 가공 공법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피곡 구매 시, 기업은 소맥의 수분, 찌꺼기 함유 정도, 입자 경도를 테스트하고, 밀가루 자체 품질을 검사한다. 대기업들은 원료 품질을 근거로 분류 저장, 혼합 가공을 진행하여, 소맥 연마 공법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한다. 생산과정 공법지표 검측에 있어서 일반 기업은 공법지표 화학시험연구원을 통해, 소맥과 밀가루 생산 현장의 주요설비의 공법 지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제품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대기업 또한 날씨 변화를 일별 모니터링하여, 미래 기상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피곡, 설비 공법 규격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제품품질은 물론, 생산 과정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 중국 밀가루 가공기업인 중량장자강(张家港), 허난중허(河南中鶴)는 밀폐된 생산현장을 통해, 실내 온도, 습도, 공기압력을 조절함으로써, 피곡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대기업은 제품 식품 공법 특성을 고려하여, 밀가루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측정하고, 스팀, 로스팅 실험실을 만들어 면제품 생산기법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품질 개선 노력을 통해, 식품 기업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라. 밀가루 품질개량

중국 제분 기업은 대개 소맥 특성, 가공 공법을 근거로 밀가루 품질 개량제를 선택하는데 주요 개량제는 유화제, 증점제, 복합효소제 등 있다. 2~5% 수준으로 첨가하거나, 밀가루에 일정비율의 글루텐이나 전분을 첨가를 통해 식품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전통적인 품질개량 방법 외에 2002년 중국 정부가 밀가루 영양 강화 프로젝트를 시행되면서, 중국 수급 개 대기업들이 허가를 받고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영양이 우수한 밀가루가 보급되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밀가루는 식품 제조의 주요 원료 쓰이기 때문에 영양 강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현재 중국 밀가루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증백제(과산화벤조일)의 경우, 중국 정부가 60mg/kg 기준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식품 안전에 대한 위험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마. 자기제어

On-Off 자동화, 오류 경보, 온라인 공법 유량 및 제품을 모니터링에 적용되고 있는 자동 PLC 제어 방식과 설비가 국내 200t 이상 규모의 제분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생산현장 관리에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지능형기술이 착수제어기, 신형 자갈 제거 세척기, 탈수기의 수분 제어에 활용되면서, 수분 제어 균일성은 물론, 후속작업을 편리하게 하고,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우수한 PLC가 전력배분 시스템에 활용되어 출력이 발생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 밀가루 가공기업에서 흔히 이용되고 있다. 밀대의 지능형 제어, 송풍기 작동 및 풍량 조절의 인버터 제어, 마분기 자동사료공급기 회전 제어, 포장 설비 자동사료공급기 정확성 제어 등 각종 기술이 에너지 절감은 물론, 품질 개선을 앞당기고 있다.

2. 해외 기업의 제분 산업 진출 현황

WTO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위주의 외국기업이 중국 제분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합병을 본격화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외국기업의 진출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외국 기업이 중국 제분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2.1. 해외기업의 진출 현황 및 특징

가. 진출 현황

1990년대에 들어서 외자가 중국 제분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다

청(大成)그룹이 광둥지역 서커우(蛇口)를 인수하여, 다청식품(서커우)을 설립하면서 중국 밀가루 시장 문이 열렸다. 1957년 타이완에 설립된 다청 그룹은 현재 사료, 식품, 요식, 영양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는 글로벌 농축식품 기업이다. 다청 그룹은 고급 전용분을 주력상품으로, 중국 국내 최대 공급량을 자랑하며, 베이징, 톈진, 장삼각, 주삼각 등 경제 발달 지역을 주요 시장으로 하고 있다. 중국 현지 일일 가공능력은 1,500톤에 달한다. 다청 그룹 뒤를 이어 난순 그룹 역시 중국밀가루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다. 1930년대 싱가포르에서 출발한 난순은 현재 동남아 최대 식품업체로,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국가에 해외 법인을 두고 있다. 난순의 홍콩 밀가루 시장 점유율은 45%에 달한다. 중국 4개 밀가루 생산기지의 하루 소맥 가공능력은 3,600톤에 달한다.

현재 중국 밀가루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외자기업은 이하이자리 그룹으로, 사업 분야로는 식량, 식용유 가공, 유지(油脂)가공, 물류항만, 무역, 종업 R&D 등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유럽 등 해외 20여개 국가에 진출하고 있다. WTO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이하이자리는 중국 밀가루시장 진출을 본격화하였고 2009년 말 기준 중국에 5개 밀가루 공장을 가동 중에 있으며, 소맥 일일 가공능력은 5,150톤이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8개 공장이 완공되면 중국 최대 소맥가공그룹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표 4. Top 3 외국기업 기본현황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이하이자리					
소맥 가공능력(t/일)		1,400	2,350	3,950	5,150
밀가루 생산량(만t)		19.3	25.2	46.8	74.7
판매수익(억 위안)		5.4	7.78	13.7	23.8
난순					
소맥가공능력(t/일)		1,900	1,900	1,900	3,600
밀가루 생산량(만t)	26	28	35	40	43
이익(만 위안)	5,500	5,000	6,000	7,000	8,000
다청					
소맥가공능력(t/일)			900	1500	1500
밀가루 생산량(만t)		9	9	12	15
이익(만 위안)			500	800	1000

자료: 韓一俊(2012)

중국 제분산업의 자본구성을 보면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이 주체이지만, 외국기업은 막강한 자본력으로 업계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중국식량업체협회 통계에 따르면(통계 범위 내에 기업 기준) 민영기업이 밀가루시장 주체로서, 현재 2007년 3,184개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였다. 2008년 국가 최저 매입가 정책에 따라 대기업에 물량을 풀었고, 중소기업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면서 생산 중단이나 문을 닫는 기업이 생겨나 2009년 2,650개로 감소하였다. 2008년 국유, 국유지주회사들이 소맥가공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360개를 기록했다. 현재 외국기업은 26개로 전체 0.98%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이하이자리, 난순, 다칭(3대 외국기업)의 소맥가공능력은 모두 256만 톤(250일 기준)으로, 전국 1.16%를 차지한다.

나. 해외기업의 지역분포

3대 외국기업의 생산기지는 연해 항만 부근, 황후아이(黃淮)해 양질의 소맥 생산지에 집중되어 있다. 이하이자리의 선전, 둥관, 쿤산, 잉커우 지역 일일 생산능력을 합치면 4,650톤이며, 허난, 산둥, 허베이, 산시는 5,300톤에 달한다. 이는 이하이자리 중국 전역 생산능력의 76%에 해당한다. 난순은 선전, 진탄, 이싱(宜興), 칭저우(靑州)에 주요 분포하고 있으며(다칭은 선전, 상하이, 톈진에 집중되어 있다.

표 5. 2009년 이하이자리 지역별 생산능력

기업	선전 난량	저우커우 이하이	스자좡 이하이	둥관 이하이	엔저우(충주)이하이	합계
생산능력	850	1,000	1,100	1,000	1,200	5,150

자료: 韓一俊(2012)

표 6. 2009년 이하이자리 건설 중, 계획 중인 생산능력

지역	탕인(湯陰)	싱핑(興平)	쿤산	하얼빈	잉커우	베이징	청투	후룬베이얼(呼倫貝爾)	합계
계획 생산능력	1,000	1,000	1,800	1,000	1,000	1,800	1,000	300	8,900

자료: 韓一俊(2012)

표 7. 2009년 난순 지역별 생산능력

지역	선전	이싱	칭저우	진탄	합계
생산능력	1,200	750	500	1,150	3,600

자료: 관련자료 정리

표 8. 2009년 다칭 지역별 생산능력

기업	텐진	서커우	상하이	합계
생산능력	400	500	600	1,500

자료: 韓一俊(2012)

현재 분산형에서 집중형으로 재편되고 있는 전환 시점에서 이하이자리, 난순을 선두로 하는 다국적 기업은 ‘선점 전략’을 통해, 밀가루 시장의 판을 짜고 있다. 현재 이하이자리의 연간 소맥가공능력은 120만 톤에 달한다. 그 중, 둥관 공장(36만 톤 추가 증산), 가오청공장(18만 톤 추가 증산)이 완공됐으며, 허난(2개), 푸젠, 장쑤, 베이징에 연간 처리량 36만 톤급 3개, 54만 톤급 2개를 건설하고 있다. 또 산둥(2개), 산시, 쓰촨, 랴오닝에 연간처리량 36만 톤급 가공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저장 위항(余杭), 윈난 쿤밍에 연간 처리량 36만 톤급 가공공장을 2개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들 모든 공장이 2013년 초 가동을 시작하면, 중국 총 16개 생산 공장에서 연간 632만 톤에 달하는 소맥을 가공하게 된다.

다. 해외기업의 시장 전략과 마케팅 수단

이하이자리 등 다국적 기업의 식량, 식용유 분야 전략을 통해 외국기업이 중국 제분산업에서 취하는 시장전략과 마케팅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1) 초기단계, ‘저가 공세’로 중국 가공기업을 견제한다.

현재 중국 제분산업에 과잉 생산과 이윤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미 과다 경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투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 시장 조정 분위기

기를 타고 중소기업을 무너뜨리고 시장을 확보하여 독과점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지고 잠재적 경쟁자를 제지하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산동 시장을 예로 들면, 원료가격 상승과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맥가공기업의 이익률이 최고 4%에서 최저 1%에 그치는 등 많은 기업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이하이자리 그룹은 저가 전략으로 산동 밀가루시장에 진출하였다. 이들은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자사 밀가루 브랜드인 진룡위(金龙鱼), 상만위안(香满园)을 대형마트에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밀가루 5kg당 가격을 타사보다 2~3위안 낮은 12~14위안으로 대폭 낮춰 판매하고 있다. 산업 평균 수준으로 볼 때 손해 보는 장사가 확실하지만 이러한 '저가전략'으로 일단 시장 인지도를 높여 시장을 확대해 나가면서 중국 국내가공기업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이다.

(2) 시장 입지를 굳힌 후 밀가루 가공제품을 활용해 높은 독점 수익을 챙긴다.

가격전쟁을 통한 시장 확보는 이하이자리 등 다국적 기업의 단기 전략일 뿐이다. 일단 브랜드 영향력과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에 달하면, 산업 벨트를 통해 고액 독점수익을 챙길 것이다.

농산물 전체 산업벨트를 손에 쥐고 있는 이하이자리는 식량, 식용유에 있어 국제적 거물이다. 이하이자리 그룹은 산업벨트 특정 분야가 아닌 전방위한 분야에 침투하고 있다. 2009년 이하이자리 그룹은 더저우(德州)시 식량국과 손을 잡고, 칭윈(庆云), 우청(武城)에 10만t급 식량저장소를 건설한 바 있고, 더저우 식량물류센터와 함께 5만 톤의 식용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료 매입, 저장, 가공, 판매까지 산업 전체 틀을 갖추게 되면, 전체 이익률은 상상을 초월한다.

자본, 브랜드, 경영에서의 우위가 현실화되면서 이하이자리는 면, 교자, 만두 등 밀가루를 이용한 가공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익률이 낮은 밀가루와는 달리 면의 이익률은 10%, 만두 등 냉동식품의 이익률은 20%에 달한다. 식물유, 밀가루, 쌀 등 브랜드 영향력과 마케팅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밀가루 가공제품의 가격 결정에 있어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중소 제분기업은 이에 맞설 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3) 영업,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이를 자사 관련제품에 활용한다.

이하이자리 등 다국적 기업은 자회사와 자사 제품의 네트워크를 매우 중시한다. 이들은 현지 양질의 원료를 획득하고, 제품 수출 및 원료 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해 대부분의 가공공장을 항만 지역, 원료 생산지에 배치한다.

이하이자리 그룹은 1990년대 초반 중국 식물유 분야에 진출한 이후 수년간 영업,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현재 중국 본사는 상하이 루자쭈이 금융무역센터에 있으며, 중국 전역 40여개 공장, 140여개 가공현장이 가동 중이며, 제품은 1,400여개 대리점, 1,500여개 창고시설을 통해 전국 각지에 팔고 있다. 이하이자리는 전국 50% 이상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중국 최대 소포장 식용유 생산기업이다. ‘진룽위’ 식용유 등 자사 제품의 기존 영향력과 채널을 이미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밀가루와 가공제품이 여러 지역 시장과 대형 마트에 쉽게 입점할 수 있다. 마케팅 비용(대개 ‘입점비용’이 들지 않음)과 물류비용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3. 중국 제분산업의 과제

최근 들어 중국 제분산업이 고속 성장을 이루었으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와 변수들이 산재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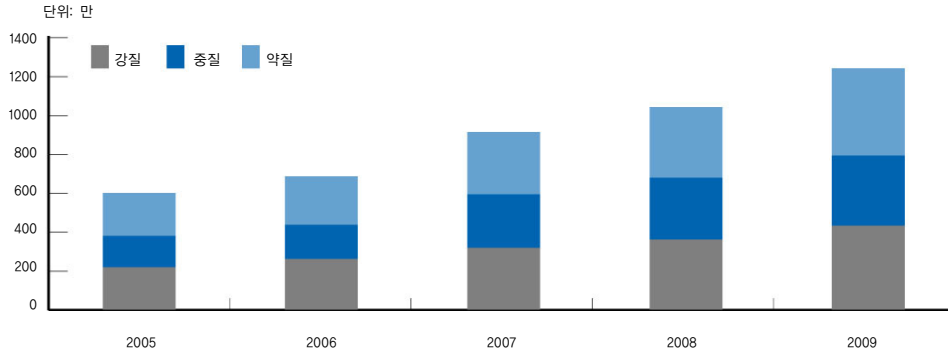
3.1. 중국 제분산업의 주요 과제

밀가루를 이용한 식품 산업의 성장과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밀가루에 대한 수요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용분에 대한 수요가 두드러지며, 제분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제분산업은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 소맥 생산과 가공 간 괴리

베이커리, 요식업, 식품산업의 고급 소맥에 대한 수요를 보면 2009년 고급소맥에 대한 수요량은 1,076만 톤으로 2005년에 비해 1.04배 증가하였고, 연평균 15.3% 증가하였다. 강질밀 수요량은 275만 톤, 중질밀 364만 톤, 약질밀 437만 톤을 기록하였다. 이는 2005년 비해 각각 72.8%, 154.6%, 93.95% 증가한 것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11.6%, 20.6%, 14.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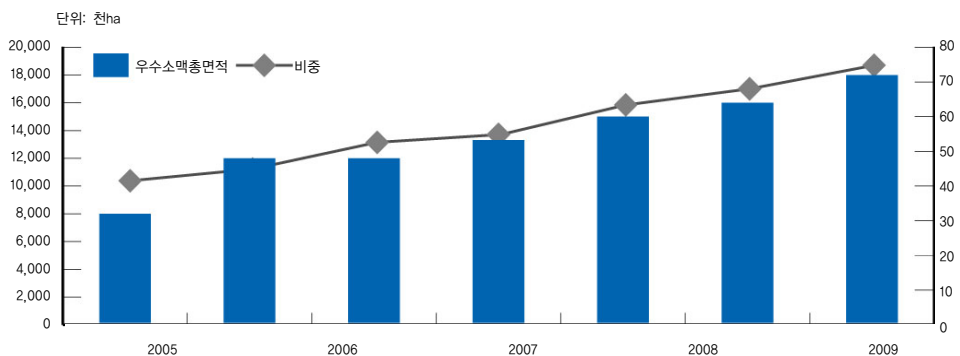
그림 1. 소맥 종류별 수요량



자료: 관련자료

우수 소맥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품종 선별, 농작지 관리, 수확, 저장 등에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 관리와 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1997년 중국 정부가 나서서 재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이러한 국가차원의 노력으로 우수 소맥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업부가 발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중국 우수소맥 파종면적이 1,646.7만 ha으로 전체면적의 67.9%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4년에 비해 1.1배 증가한 것이며, 연평균 12.9% 증가한 것이다.

그림 2. 우수소맥 파종면적 및 전체파종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관련자료

그러나 소맥 제분과 식품 산업 발전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다.

(1) 실건품질이 고유품질 기준에 미달된다.

대다수 우수 소맥품종의 실건품질이 고유품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국가 소맥산업기술연구개발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농가가 재배하는 우수 강질소맥 품종의 평균점유율은 21%에 그친다. 안정시간 \geq 7분 기준으로 계산하면 도시 농가 경작지 소맥 샘플 22.2%만이 우수강질소맥 2급에 해당한다. 단위중량 \geq 770g/리터, 단백질 함량 \geq 14%, 안정시간 \geq 7분, 하강수치 \geq 300초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5.6% 샘플만이 우수강질소맥 2급에 해당한다. 샘플 조사에 따르면, 안정시간 \geq 7분 기준일 경우, 도시 곡물창고 샘플 11.1%만이 우수강질소맥 2급에 해당한다. 단위중량, 단백질 함량, 안정시간, 하강수치를 종합적으로 적용한다면 모든 도시 곡물창고 샘플이 우수강질소맥 2급에 도달하지 못한다.

(2) 소맥 품종이 다양하고, 품질 차이가 크다.

중국 농업 재배 방식의 제약으로 인해 동일 지역의 소맥품종이 다양하고, 경작의 규모화가 실현되지 못해 우수한 단일 품종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수확 및 가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수한 소맥을 확보하는 것이 제분기업의 최대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현재 제분 기업은 여러 번의 소맥 배합을 통해 상품 품질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3) 소맥품종 변이성이 강하고, 재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중국 소맥은 병충해, 쓰러짐에 저항력을 가지고 있지만, 변이에 대해서는 더욱 개선이 필요하다. 우수소맥은 재배한지 몇 년이 지나면 대부분이 품질퇴화가 빠르다. 또한 동일 품종이라도 지역, 토질, 관리방식에 따라 품질차이가 크며, 이는 가공기업의 생산 관리에 장애가 되고 있다.

(4) 가공 기술, 식용 품질 적합성이 떨어진다.

중국 밀가루 음식은 다양한 품질의 소맥이 요구된다. 지역마다 수천 년의 문화가 축적되어 주식과 식습관이 생겼기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 않다. 중국 전통 음식에 맞는 우수소맥을 개발하는 것이 현재 중국 소맥생산의 목표이다. 만두, 국수, 교자 등 전통 밀가루 음식이 요구하는 품질의 소맥을 개발하고, 지역별 식습관을 고려한 우수 소맥을 재배한다. 현재, 많은 지역들이 너도나도 우수 강질밀 가루를 재배하려 하지만, 현지 식품 특성과 많지 않아 소맥가공기업이 직접 외지에 나가

소맥을 조달해 음식을 제조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나. 소맥 수확저장체계가 제분산업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

현재 중국의 경우, 소맥 저장과 식량 구매는 중국비축식량관리공사가 책임지고 있으며, 중국 식량 안보와 농민 수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분산업에게는 유리하지 않다. 첫째, 식량 비축과 구매 시 우수소맥과 일반소맥을 분리하지 않아, 우수소맥만 따로 분리하여 수확, 저장, 판매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 때문에 농민들의 우수소맥 재배에 대한 동기가 결여되고 있다. 또한 소맥가공기업도 국유 저장소에서 적합한 우수소맥을 낙찰받기 어렵다. 둘째, 정부구매식량 낙찰주기가 경매에서 출고까지 3개월의 시간이 걸려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비용이 증가한다. 셋째, 정부구매식량의 경우 경매, 참고출하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저장소는 1톤당 30위안인 출고비를 100위안까지 올리는 횡포를 부리고, 물을 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샘플과 실질 품질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소맥가공기업이 곡물 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제분산업 발전을 저해한다.

다. 산업 환경과 긴급가공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계획 수립과 균형 발전이 부족하다. 일부 지역은 종합적인 산업발전 계획과 과학적 입증을 생략한 채 무분별하게 투자를 유치하여 생산 능력이 고속 팽창되고, 자원 낭비와 중복 투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맥 생산지는 가공 능력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형 소비도시와 대도시 주변에 소맥가공기업이 부족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밀가루 공급을 안정화하고, 지역적 안전을 유지하는 대응책이 부재하다. 또한 긴급 상황을 대비한 가공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있다.

라. 기업 규모가 영세하고, 원료 자원 손실과 낭비가 심각하다.

대형기업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중국 소맥가공기업 규모는 영세한 편이며, 생산 집중도가 낮은 상황이다. 2008년 중국 전역 소맥가공기업은 중소형 기업이 주를 이루었으며, 일일 가공 30~200톤인 기업 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톤 이하인 기업이 2,070개로 전체 73.4%에 달했다. 이들 중소기업

의 기술력과 설비 수준은 선진국 19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품군이 다양하지 않고, 완성도가 떨어지며, 식량자원이 이용률이 낮고 에너지 소모가 크다.

마. 신제품 개발이 더디고 부가가치가 낮다.

대다수 소맥가공기업의 상품군이 다양하지 않고 수준이 낮아 부가가치가 낮다. 2008년 중국 제분산업 판매수익 이익률은 1.8%에 그치고 있다. 가공능력 100톤 이상인 소맥가공기업 중 60%가 보통분을 생산하고 5~10%만이 전용분을 생산한다. 5%의 기업만이 생산 현장을 갖추고 있으며, 부산물을 이용해 가공하는 기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중국 대부분 소맥가공기업은 초기 가공에 그쳐 완제품 보다는 반제품이 주를 이룬다. 저부가가치 보통분이 대부분이고 고부가가치인 전용분은 11%에 그치고 있으며, 전용혼합분, 영양강화분 비율은 1%미만이다. 또한 자원 이용 수준과 효율이 낮아 부산물(껍질, 배아)이 상품화되지 못하고 있다. 소맥산업 체인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소맥 육종 → 재배 → 발주 → 식품 가공 → 심가공 → 부산물 이용 등 산업체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바. 식품품질안전보장시스템 미비

중국소맥가공기술 표준체계가 부족하고, 식품안전위생 검사, 모니터링 수준이 낮다. 소맥 유통과 위생적 생산 가공을 소홀히 하며, 잔류 농약, 진균 독소, 유해미생물 등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소맥가공제품 품질안전보장체계가 허술하다.

제품 품질 항목이 국제기준과 맞지 않다. 제분산업의 경우 원료에서 제품 품질에 이르기 까지 기술요소, 잔류농약, 진균 독소, 유해미생물, 중금속 기준치 등 자세한 안전 기준사항이 적고, 개정안도 제때에 업그레이드되지 않고 있으며, 기술 표준 경쟁력도 약하다. 식품첨가물은 미국 FDA와 EU, 일본 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가표준체계가 산업 실정과 괴리되어, 제분산업의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대부분 소맥 가공제품의 품질검사, 안전 기준, 검사방식은 외국 모방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자체 구축력과 응용력이 떨어진다. 특히, 속성 검사, 온라인 검측, 시장 추적 검사에 있어 설비가 부족하며, 잔류 농약, 진균독소, 유해미생물, 중금속에 대한 속성검사기술력이 낮다.

추적검사체계가 부족하다. 대기업을 제외하고 많은 기업들이 품질관리시스템과 식품안전시스템 인증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도 오염물, 불법적인 첨가제에 대해 안전검사와 제재가 불가능하고, 중소기업은 담당 인력과 설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공기업은 원료와 생산과정보다는 최종 제품에 대해서만 검사하고 있다. 중국 밀가루 미생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첨가제의 무분별한 사용이 문제화 되고 있다.

사. 제분산업 기술력이 떨어지고, 산업화, 규모화, 집약화 정도가 낮다.

중국 제분산업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시장 진입문턱도 낮은 편이다. 기업 규모가 영세하고, 시장구조가 분산되어 있어 경제효과가 떨어진다. 2008년 중국 생산능력 이용률은 50%에 그쳤다. 이와 동시에, 중국 주식 특히, 국수, 만두, 교자, 부침요리 등 전통 면요리 주식의 산업화수준은 15~20%로 낮은 편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라면 생산국이다. 라면이 밀가루 식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그치지만, 라면 공업화가 농업과 식품공업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기술력을 요구하는 주식 산업화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어 빠르게 늘고 있는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기술 연구개발, 생산 표준화, 기업경영 산업화 등 문제가 아직 뿌리 깊게 남아있으며, 전통 주식 산업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중국 냉동식품이 소비자의 질적, 양적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제품이 다양하지 않고, 산업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가공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기계화 수준도 낮다. 전처리 기술, 해동기술, 냉동 운반, 저장, 저온 판매 기술 및 설비에 있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국내외 소맥가공이 생산규모 대형화, 자동화 추세에 있지만, 중국 기존 기술, 설비로는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세계 최대 단일 라인 밀가루 생산능력은 3,000톤/일이지만 중국의 경우 최대 단일 라인 밀가루 생산능력은 1,000톤이며 나머지 대다수는 100~500톤에 그치고 있다.

4. 결론

개혁 개방 이후 중국 제분산업의 생산능력과 기업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제품구조, 가공기술이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제분산업의 시장집중도가 여전히 낮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산업 이익률이 낮은 편이다. 제분산업의 산업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허술하며 부문별한 경쟁이 존재한다. 현재 중국 제분산업의 산업집중도 및 지역집중도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 소맥 가공 및 생산은 황화이 평원, 산둥, 허난, 허베이3성에 몰려 있으며, 49%에 이른다. 가공기업이 주요 생산지로 이전하면서, 기업 재료 조달 비용 감소, 이익 상승, 지역 농가 소득 개선, 경작지의 효율적 이용 등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 제분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소규모 공장이 감소하면서 생산과 가공의 중심축이 자금, 기술 경쟁력이 있는 대형, 중형기업으로 이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무분별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공기업들이 한 지역에 몰리면서, 소맥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입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 전체 이익, 판매수익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기업의 성장세가 가속화되면서 중소기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저가 전략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중국 대기업에게 미친 영향은 크지 않지만 중소기업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외국기업의 저가 공세는 막강한 기술력과 자본력에서 기인한 것이다. 최근 외국기업은 허베이 스자좡, 허난 저우커우 등 주요 밀 생산지에 집중적으로 생산 공장을 세우고 있으며, 선전, 저장 등 동남부 연해의 경제발달지역에 판매 공장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주요 생산지에서 국내 최고의 소맥을 직접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또 연해지역 판매 공장은 해외에서 소맥을 용이하게 수입할 수 있다. 주력제품 외에 전용분, 껍질 등 기타제품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에 위협을 주고 있다.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이 여전히 제분산업에서 주도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외국기업의 자금, 규모, 브랜드 우위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투자, 인수합병을 강화하고 있으며, 생산기지를 연해 항구, 황하이 밀 생산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화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마케팅, 물류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며 이를 자산 관련제품에도 활용하고

있다. 시장 진입 초반에 ‘가격공세’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입지를 굳힌 다음, 산업벨트, 심가공 제품으로 고액의 독점이윤을 확보한다. 다국적 기업은 중국 제분산업 성장, 고도화, 기술력 향상, 수출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국내 본토 기업 이익 감소, 중국 국내 시장에 대한 지배력 강화, 일자리 ‘적출효과’ 등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

참고문헌

韓一俊. 2012. 中國小麥產業 發展與政策選擇. 中國農業出版社.